

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통합, 친환경, 안전의 관점에서-

배영현¹, 박성훈¹, 강보라¹, 김시내¹, 이연재²¹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²와이프레이랩

서론

-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2016년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된 '꿈틀 꿈틀 통합놀이터'이며, 우리나라의 놀이시설 77,949곳에 통합놀이터는 약 23곳 (0.03%)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철, 2022).
- 그리고 통합놀이터 관련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합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국민은 여전히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놀이터로서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곳으로(장애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 세대 통합 환경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다(엄하영, 2019). 이렇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통합놀이터가 시설물 설치기준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엄선희, 2019), 조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설치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던 그네 의자의 기둥이 부러지면서 넘어져 근처에 있던 아이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신용승, 2023).
- 이에 따라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비 아동, 장애인, 비장애인, 성인, 노인 등이 함께 어울리며 신체·정신·사회적 기능 요소 고려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 및 장비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에 대한 고려사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을 위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인터뷰 대상자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활 전문가 1명, 스포츠 전문가 1명, 놀이터 디자인 전문가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4세이고 평균 경력은 19.8년이었다.
- 연구 대상자는 관련 전문가 의도적 표집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경험과 연구 경험을 갖추고 실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통합놀이터 조성 방향 정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활, 스포츠, 놀이터 디자인 전문가를 섭외하여 최종 3인으로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인터뷰 질문 구성

- 인터뷰 질문 구성을 위하여 통합놀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토의를 하기 위해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된 인터뷰 질문은 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하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인터뷰 질문을 제작하였다.

(3) 인터뷰 수행 방법

- 2023년 7월에 전문가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반구조화된 질문지 이용한 인터뷰 방법을 통해 미리 작성된 질문을 전문가에게 보내어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뷰는 연구자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하였다.
- 인터뷰 진행 시 질문지에 기재된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대화가 가능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허락하에 전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공동연구자 1인이 전사하였으며 다른 공동연구자 2인이 전사본과 녹음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 인터뷰 내용은 연속적 비교법에 따라 유형화 및 부호화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녹음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전사본으로 작성한 후 분석하였다. 먼저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며 전사한 후,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의미 있는 내용을 부호화하였다.
- 반복적인 부호화 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범주를 정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범주를 모아서 3개의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두 번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영역을 수정 보완하였다.
-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표집으로 조사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질적 자료 분석 시 연구자를 교차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다시 재검증받아 연구자의 주관적인 사건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결과

(1) 지속 가능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도출

① 다양한 대상자의 통합을 고려한 장비 디자인

- 장애인(휠체어, 유모차 사용자 포함), 비장애인, 성인, 노인(지팡이 사용자 포함), 반려견 등 다양한 대상자가 개인별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장비 디자인이 설계되어 통합놀이터가 구축되면, 대상자별 놀이터 이용에 있어서 분절이 줄어들고 거주지에 가까운 통합놀이터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발달 및 생애 주기적 이용과 세대 통합, 그리고 자연스러운 장애인식 개선까지 사회적 기능 강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② 다양한 대상자의 기능을 고려한 장비 디자인

- 어린이 놀이터의 '트램펄린', 야외운동기구, 노인용 '큰 원 그리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뽕뽕이', '모래놀이'와 노인 놀이터 '손가락 계단'을 이용한 감각 놀이 등에 의한 인지 및 심리 기능 향상처럼 다양한 대상자가 개별·통합적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디자인이 요구된다.

③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및 장비 디자인

- 숲 체험장, 생태 놀이터, 생태 공원 등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편의 시설과 함께 구성된 통합놀이터는 기존 놀이터 환경 및 장비에서 문제 시 되었던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대상자가 함께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장비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설계되고 코르크 등의 재생 재료를 이용한 놀이터의 바닥, 장비를 개발 보급한다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통합놀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결론

-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외 통합놀이터 디자인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면 저출산 초고령사회 대비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통합, 친환경, 안전) 실외 통합놀이터를 활용하거나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현철, 2022,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68, 13-24
-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 (2016). 무장애통합놀이터 후속 모니터링 보고서.
- 엄하영 (2019).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놀이터 설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선희 (2019). 모두 함께 놀자, 팝업 통합놀이터. 월간 복지동향. 249, 54-57.
- "아파트놀이터 '그네벤치' 기둥 뽑혀", 국토일보, 2023년 6월 12일